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5. 2.(목) 06:00 < 5.2.(목) 석간 > 배포 2024. 5. 1.(수)

액화천연가스(LNG) 장·단기 도입계약 추진한다

- 국내 수요충족과 가격안정 위해 신규 도입계약 필요
- 5.2일 민간 전문가 참여 천연가스 도입위원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충족하고 도입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장·단기 도입계약'(이하 기간계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5월 2일(목) 가스공사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연가스 도입자문위원회(이하 도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입계약의 기본 방향과 도입조건의 평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은 기간계약과 현물계약으로 구분한다. 기간계약은 도입기간(장·단기)과 가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체결하며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에도 가격과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반면, 도입물량을 변경할 수 없어 도입 유연성은 낮다는 특징이 있다. 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약 70~80% 수준을 기간계약으로, 나머지는 현물계약으로 조달하여 수요와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향후 2~3년 이내에 가스공사의 기존 장기계약 중 일부가 종료되어 기간계약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천연가스에 대한 국내 수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의 기간계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금번 도입자문위원회에서는 국제 천연가스 기간계약 시장 전망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가격조건을 최우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특정 지역의 공급 차질에 따른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도입계약을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장기간 가스수급과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천연가스 국제 시황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하여 도입계약이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 장	강경택 (044-203-5230)
		담당자	사무관	정한솔 (044-203-52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국내 LNG 도입현황('23년 기준)**

□ **국내 LNG 도입 총량**(관세청 수입신고월 기준)

○ (**사업자별**) '23년 총 44,117천톤이 국내로 도입되었으며, 가스공사는 34,752천톤(78.8%), 직수입사*(18개사)는 9,365천톤(21.2%) 도입

* '23년말 기준 총 22개사가 등록되어있으나, '23년 도입실적이 있는 회사는 18개

○ (**국가별**) 호주 10,422천톤(23.6%), 카타르 8,605천톤(19.5%), 말레이시아 6,115천톤(13.9%), 미국 5,113천톤(11.6%), 오만 4,966천톤(11.3%) 등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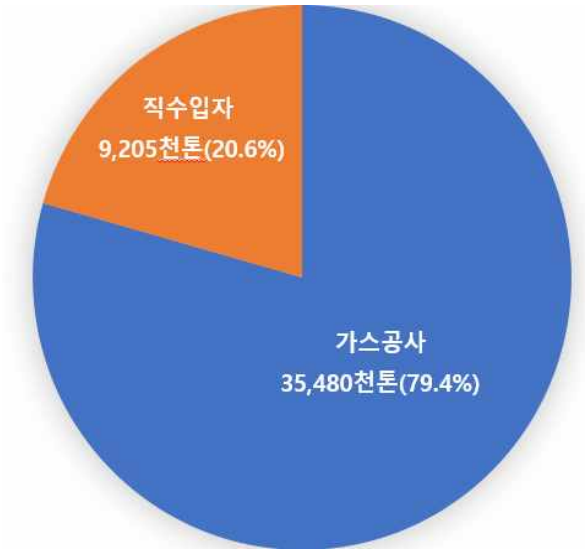
국가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	미국	오만	기타
도입량 (비중)	10,422만톤 (23.6%)	8,605만톤 (19.5%)	6,115만톤 (13.9%)	5,113만톤 (11.6%)	4,966만톤 (11.3%)	8,896만톤 (20.1%)

□ **가스공사 LNG 도입계약 형태별 비중**(하역월 기준)

○ (**기간계약**) '23년 도입물량 35,480천톤 중 기간계약은 26,060천톤(73.5%)으로 장기 24,648천톤(69.5%), 단기 1,412천톤(4.0%) 도입

○ (**현물계약**) '23년 도입물량 35,480천톤 중 현물은 9,420천톤(26.5%) 도입

<사업자별 도입 비중>



<가스공사 LNG 도입계약 형태별 비중>

